

대학생의 영어 리듬과 억양구조 인식에 대한 연구

박 주 현(충북대학교)

I. 서 론

외국어를 말할 때 그 나라 사람답게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상당한 기간동안 외국어 발음을 공부하여 자음, 모음 등의 분절음은 어느 정도 정통하였다 해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거나 말투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말소리의 여러 복합요소를 완전하게 습득 못 하였기 때문이다. 언어에는 분절음과 더불어 강세, 음의 지속, 휴지(pause), 억양 등의 비분절적(non-segmental)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어음성교육은 지나치게 분절음에 치우쳐 있고 운율자질에 대한 교육은 거의 등한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영어의 운율 특징은 흔히 말하는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Stress-timed language)라는 데서 요약될 수 있다. 영어 액센트의 중심은 강세이고 이러한 강세는 영어의 음절구조와 리듬패턴에 의해서 부여된다. 이렇게 부여된 강세는 영어의 리듬구조를 이루고 리듬구조의 집합이 억양구조를 이룬다.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영어음성교육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어리듬과 억양구조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다. 대상을 대학생으로 삼은 것은 중등학교의 6년간의 결과를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어의 리듬과 억양체계를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우선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영어의 리듬과 억양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실제로 대학생(주로 1학년)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영어 발음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결과는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을 위해서이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음성교육에 공헌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영어의 리듬과 억양 이론¹⁾

1. 영어강세의 특징

영어단어 강세의 기능과 규칙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본장은 필자의 졸고(1989)가 큰 바탕이 되어 여기저기서 재인용하였다.

(1) 영어의 단어강세

a. 강세부여 규칙의 일반 원칙

i. 음절강세 : 중음절 (heavy syllable) → [+stress]²⁾

경음절 (light syllable) → [-stress]

ii. 리듬강세 : 리듬교체 원칙에 지배를 받음. (w)swsww...

s w s w s w s w s w w

예 : labor execute sensationality

+ . + - + + + - + - -

iii. 오른쪽 → 왼쪽 : 오른쪽 음절부터 고려하여 제일 첫 중음절에 강세를 준다.

iv. 동사와 형용사의 경우는 끝음절이 중음이면 강세를 준다. 그러나 중음절이 아니면 끝에서 두번째 음절(penultimate syllable)에 강세를 준다.

v. 명사인 경우는 끝음절을 고려하지 않고 동사와 형용사와 같이한다. 적어도 끝에서 세번째 음절(antepenultimate syllable)에 강세를 준다.³⁾

예:	동사:	maintain	surrender	
		s	s	
	형용사:	severe	explicit	
		s	s	
	명사:	complexion	elephant	America
		s	s	s

b. 변별적 기능

i. 어휘의미 : defér / díffer, below / bíllow

ii. 품사변경 : ínult / insúlt, séparate / séparate

a의 강세 규칙은 일반 원칙이라기 보다 강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비형식적인 서술일 뿐만 아니라 예외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SPE이후 최근까지 형식화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되고 있는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음절에 강세를 갖는 경향은 영어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범어적(universal)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리듬교체 원칙은 영어와 같은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강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s(stress syllable)와 w(weak syllable)이 교체되어 ss나 ww가 배제된다. 율격음운론(metrical phonology)에서는 이를 계층구조로 설명되고 있다 (LP 참조).

b의 변별적 기능은 영어단어 강세의 유일한 기능이지만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 품사변경의 경우에는 모음의 음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변별적 기능은 가졌다고 할 수 없다.⁴⁾

2. 중음절 : C₀VC₁, C₀VVC₀ ; 경음절: C₀V
 3. iii, iv, v 는 SPE, LP 의 강세규칙, Cruttenden 1986: 19 참조.
 4. Gimson 1980: 232-4; 전상범 1985: 317-8 참조.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어는 고정된 강세를 가지지 않고 변별적 기능도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는 강세는 예언될 수 없고 복잡한 규칙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어휘부 또는 사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i의 음절 구조와 aii의 리듬교체 원칙이 큰 뒷받침이 된다.

2. 강세박자와 리듬단위

2.1. 강세박자 리듬

시간적 관점에서 리듬의 중심 개념은 주기성(periodicity)나 동시간격성(isochrony)으로 요약된다. 주기성은 어떤 이벤트(event)가 규칙적인 주거나 간격으로 반복됨을 뜻한다. 동시간격성은 이들 간격이 시간적으로 동일간 지속시간을 갖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시계의 소리, 기관총의 연속발사 소리 등과 같은 다소 기계적인 운동에서 잘 나타난다. 보다 자연스런 형태의 리듬현상은 심장의 고동, 호흡, 걸음걸이 등과 같은 신체의 운동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운동은 소위 '운동근육'(motor)이론으로 언어이론에 연관된다. 언어를 소리말이라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든 언어는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이벤트가 시간적으로 규칙적 간격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이벤트가 모든 언어에 똑같지는 않다. 언어는 리듬 유형에 따라 흔히 강세-박자(stress-timed)언어와 음절-박자(syllable-timed)언어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강세-박자 언어는 강세음절이 시간상 규칙적으로 일어나 동시간격을 이루고, 강세음절과 강세음절 사이에 무강세 음절의 수가 다소 차이가 나도 발화 속도의 조절로 어느 정도 동시간격을 이룬다고 본다. 그러므로 강세음절의 수가 시간 지속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음절 이박자 언어는 음절이 동시간격의 단위, 즉 리듬의 단위가 된다. 여기에는 모든 음절이 동등한 시간 간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10음절 문장은 5음절 문장의 두배의 시간을 갖는다. 강세-박자 언어에 속하는 언어는 영어, 러시아어 등이고 음절-박자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이 된다. 그래서 영어리듬은 모스부호(Morse code)의 리듬에, 프랑스어는 기관총의 리듬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Couper-Kuhlen 1986: 53). 그러나 소리말 리듬의 이러한 분류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동시간격성에 있다. 여러 연구에서 동시간격성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백중하다.⁵⁾

2.2. 리듬단위

음보는 영어 소리말의 동시간격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Abercrombie(1964)에 의하여 개발된 리듬단위이다. 음보는 항상 강세음절에서 시작된다. 음보는 강세음절 하나만

5. 여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박주현(1989: 3,2,3) 참조.

으로도 이루어 지지만 보통 강음절과 약음절의 두 음절 또는 강음절과 두 약음절로 구성된다. 이론적으로는 강세음절을 따르는 모든 약음절이 포함된다. 강세음절을 따르는 약음절이 많을수록 그 약음절은 압축되고 강세음절도 길이가 짧아진다. 다시말하면 음절의 길이는 음보의 패턴에 따라 길이가 조정된다. 그래서 음보는 거의 동일한 지속시간을 갖는다. 한 영어의 문장은 강세 고동박의 등시간격성 박자에 의해서 동일한 길이의 음보로 분할된다. 즉, 영어의 소리말은 음보에 의하여 등시간격성이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음보의 연속이 문장의 문장강세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는 강세음절수에 따라 세 음보로 분할된다. 즉, This is the | house that | Jack | built 가 된다. 그러므로 음보는 음악의 소절(bar) 개념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Halliday 1970: 1).

한편 리듬군은 강세음절과 함께 형태, 통사구조를 고려한다. 그러므로 강세음절이 리듬군에서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강세음절의 뒤는 물론 앞에도 무강세 음절을 갖게 된다. 다음에 O'Connor(1980)의 두 예를 보자.

- (2) ai. | It was better | (p.97)
 aii. | ^ It was | better |
 bi. | I'm going | home | today | (p.99)
 bii. | ^ I'm | gonig | home to| day |

여기서 ai, bi은 리듬에 의한 분석이고 aii, bii는 음보에 의한 분석이다. a의 경우 리듬군은 한 리듬군인데 비하여 음보는 두 음보가 된다. b의 경우도 리듬군은 셋인데 비하여 음보는 넷이 된다. 음보는 항상 강세음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aii 나 bii에서와 같이 침묵강세를 설정한다. 그리고 bii의 today에서와 같이 단어가 분리되고, This is the house ... 에서 the 와 house가 분리되어 문법구조가 무시된다. 리듬단위로서 리듬군과 음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Kingdon(1958: 161)의 지적과 같이 언어가 장식적이라기 보다 의미전달에 우선한다면 리듬군으로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외국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더욱 그럴 것이다.

리듬군의 강세음절 s는 흔히 내용어(content word)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용어에 강세가 부여되고 기능어(function word)인 경우는 강세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기능어는 내용어 앞뒤에서 선도음절이나 추적음절이 된다. 그리고 흔히 리듬군의 강세는 문장강세(sentence stress)라 한다. 그러나 내용어가 강세를 받지 않고 문장강세를 받는 경우는 대개 두가지가 있다. 첫째, 강조강세(emphatic stress)로 문장 내에서 어느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고자 할때 부여되는 강세이다. 둘째, 대조강세 (contrastive stress)로 문장 안의 어떤 말을 다른 말과 대조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강세이다. 이들은 초점강세의 일종으로 내용어나 기능어의 구별없이 강세를 부여하여 강조하거나

대조시킬 수 있다 (전상범 1985: 351-7 참조).

2.3. 억양군

억양의 기술은 대체로 원자론적(atomistic)이거나 전체론적(global)인 것이었다. 원자론적 기술은 분절음소와 단어들 사이에서 갖는 관계와 같은 관계를 의미없는 하위단위들과 억양 사이에서 찾으려는 방법으로, 억양을 분절 될 수 있는 피치음소의 연속체로 간주한다. 미국식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이론'(level approach)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전체론적 기술은 억양곡선을 하나의 단일체로 간주하여 전체의 억양곡선을 기술하면서 문법적, 태도적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방법으로 영국학자들 중심의 '음조이론'(tone approach)이 이에 해당된다 (Bolinger 1972b: 51 참조).

미국식 계층이론의 장점은 억양기술을 네 단계의 피치, 네 단계의 강세, 세 말미 연결점으로 단순화 시킨데 있다. Prator(1972)는 231형(rising-falling intonation), 233형(rising intonation), 232형(nonfalling intonation)의 세개의 억양으로 단순화시켜 모든 미국영어의 억양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층이론은 영어 교육적인 면에서 공헌도 많지만 첫째, 음성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둘째 억양의 비 언어적 요소를 음운전사에서 제외시킬 어떤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된다 (Frank 1974: 9). 피치 움직임의 모든 작은 뉴앙스는 발화의 의미에 미묘한 차이를 주기 때문에 전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억양의 기본단위로 영국식 전통을 따라 억양군(intonation group)⁶⁾을 좀더 보기로 한다. 억양군은 대체로 특정한 억양곡선을 갖는 문장단위에 해당된다. 억양군은 통사론, 의미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억양군의 내적 구조를 설명한다.

- (3) a. 억양군 → 머리 + 핵음조⁷⁾
 b. 핵음조 → 핵음조 + (꼬리)
 c. 머리 → (앞머리) + 본머리 (+ 머리)

위에서 보듯이 억양군은 크게 머리와 핵음조로 분할된다. 핵음조는 억양군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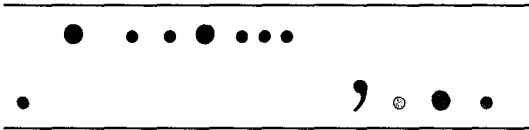
6. '억양군'이란 용어는 관점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즉, 'sense-group', 'breath-group', 'tone-group', 'tone-unit', 'tone', 'phonologicalclass', 'intonational phrase', 'intonation chunk' 등(Crutenden 1986: 35; Couper-Kuhlen 1986: 76 참조).

7. Ashby(1978:327), Couper-Kuhlen(1986:78)에서 tone-unit → (prehead) (head) nucleus(tail); Shubiger(1985: 15)에서 (pre-head) + Head(+Body) + nucleus(+tail)을 바탕으로 하고 Ladd(1980: 16)을 참조하였음.

이 되며 필수 구성분이 된다. 따라서 머리(head), 꼬리(tail), 앞머리(prehead), 본머리(main-head)는 선택적이다. 억양의 의미의 변화에서도 핵음조가 핵심이 된다.

다음에 실제로 억양군의 예를 들어보자.

- (4) I 'want to be 'absolutely \sure a|bout it.



여기서 sure는 핵음조(낮내림)이고, about it는 '꼬리'로서 -bout 에 제 2강세가 온다. 머리 부분에서 I는 '앞머리'가 된다. want to be absolutely는 머리인데 want와 ab- 에 제 1강세가 있다. 그런데 want는 I의 저음조(Low)에서 고음조(High)로 음조의 올림, 즉 이동된 음조의 시작을 나타낸다. want는 피치 액센트가 된다 (Cruttenden 1986: 48). 이 경우 want는 '본머리'라 부른다. ab-는 특별한 피치이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된다.

2.4. 한국어의 리듬

소리말에 있어 리듬의 중요성에 비하여 우리말 리듬의 연구는 상당히 부진한 편이다.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은 우리말 강세의 특성에 있는 것 같다. 우리말 강세는 영어에 비하여 강도가 훨씬 약하고 강세 음절과 무강세 음절의 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변별적 기능도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마다 강세가 있다고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람은 단어의 강세에 대한 언어 직관이 없는 것 같다.

우리말 운율 연구는 액센트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대표적인 이론은 이승녕(1960)의 '강약(stress) 액센트 설'과 정인섭(1965)의 '고저(pitch) 액센트 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표준말의 액센트와 리듬에 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현복(1973)에서 비롯된다. 이현복(1973)은 리듬 개념을 도입하여 표준말의 액센트는 음의 길이와 강세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복합 액센트 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은 최근까지 여러 실험 연구(8)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입증되고 있다.

다음에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의 강세와 리듬현상을 영어와 비교하는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5) 한국어의 강세와 리듬현상

8. 이현복(1985,1993), 이호영(1987), 박진희(1990) 등.

- a. 강세의 특성 : 강세는 강도(intensity) 탁립이며, 음의 길이(length)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b. 리듬 단위 : 강세 음절과 무강세 음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덩어리의 리듬군(또는 말토막)을 이룬다. 즉, 강세음절이 중심이 되어 앞, 뒤에 하나나 그 이상의 무강세 음절이 올 수 있다.
- c. 한국어의 리듬은 강세-박자 리듬의 한 유형이거나, 강세-박자 리듬과 음절-박자 리듬의 두가지 특성을 지닌 중간 유형이다.
- d. 강세 부여 : 강세는 기본적으로 음절구조와 리듬패턴에 따라 결정된다. (i)중음절(heavy syllable)에 강세 부여. (ii)중음절이 없는 경우는 리듬패턴에 따라 보통 두번째 음절에 강세 부여. (iii)강세는 보통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결정된다.
- e. 단어강세의 위치와 기능 : (i)강세는 어느 특정 위치에 고정되지 않으나 보통 첫 음절이 중음절이면 그 음절에 강세가 오고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ii)단어 강세는 변별적 기능이 없다. 사전이나 어휘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 f. 피치 액센트 기능 : 강세는 잠재적 피치 액센트가 된다. 이 경우에 문장강세 기능, 대조강세 기능, 강조강세 기능 등을 한다.

영어와 같이 강세는 강도탁립, 액센트는 피치탁립인데, 한국어에서는 음의 길이는 중요한 탁립이며 여러 단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갖는다.

III. 리듬과 억양의 청취 실험

1. 실험 목적 및 가설

본 청취 실험은 한국인의 영어 리듬과 억양의 청취력을 조사하여 듣기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청취 실험을 통하여 올바른 영어듣기와 말하기 교육의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다.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 한국인은 한국어의 언어습관을 그대로 전이 하기 쉽다. 이러한 전제 아래 II장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한국인의 영어 청취 습관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여 본다. 또한 이러한 예측은 본 연구에 가설이 되고 연구 수행에 지침이 될 것이다.

(6) 영어 청취에서 예측되는 한국인의 언어습관

- a. 강도 탁립은 인식한다. 그러나 강세 음절과 무강세 음절은 분명히 청취 식별하

지 못한다.

- b. 단어 강세의 경우에 첫 음절이나 둘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고 판단하기 쉽다.
- c. 문장 강세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 쉽게 식별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는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b. 핵음조와 음조단위 경계(또는 휴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 즉, 영어의 억양군에 익숙하지 않다.
- e. 단어 강세에 따른 의미 식별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문장 강세의 피치 액센트(또는 핵음조)에 따른 의미 식별은 어려움이 많다.

2. 자료

청취 실험 평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1과 2는 단어강세 인식을 위한 것으로 1은 무의미한 단어, 2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지명들로 구성하여, 피 실험자가 강세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은 문장강세 인식을 위한 것으로 (1)은 ws의 반복, (2)는 sww의 반복, (3)은 swww의 반복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리듬군의 반복으로 구성하였고, (4)는 주부와 술부 사이에 휴지를 두어 s/s(강음절 휴지 강음절)의 문장강세, (5)는 강조강세 부여, (6)은 대조강세가 부여된 문장강세로 구성하였다. 4는 핵음조 식별력을 위하여, 정상적인 문장 (1)과 (4), 초점강세가 부여된 문장들 ((2), (3), (5))로 구성하였다. 5는 핵음조와 음조단위 경계 식별을 위한 문항으로 (1)-(3)은 한 억양군, (4)-(6)은 두 억양군, (7)은 세 억양군으로 구성 하였다. 6은 단어강세에 의하여 품사가 달라지는 의미식별력을 위한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7과 8은 핵음조에 의한 의미 식별력을 위한 문장들로, 초점강세를 받는 문장을 들고 7은 녹음된 자료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물음이 어느것인가를 고르는 것이고, 8은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답지에서 고르는 것이다.

1에서 5는 주관식 판단에 의해서 답하도록 하였으며 6에서 8은 선택형으로 하였다.

녹음자료는 1, 3, 4, 6은 Gimson(1975), 2, 5는 Roach(1983), 7, 8은 전상범(1985)의 각각의 녹음 테이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 녹음 하였다.

English Listning Test

학과, 학년 _____ 이름 _____

1. 녹음내용을 잘 듣고 제1강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절에 강세표시를 하여라. 예: lá la la

(1) li li (2) la la (3) la la la (4) la la la (5) la la la la

2. 다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지명이다. 제1강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절에 강세를 표시하라.

- (1) Colchester (2) Dunfermline (3) Stevenage (4) Penzance (5) Glamorgan
 (6) Coleraine (7) Huddersfield (8) Halesowen (9) Wilmslow (10) Inverness

3. 다음 문장에 문장강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절을 모두 표시하라.

예: She came in time for tea.

- (1) Of course we want to come. (2) Everyone thought it was terrible.
 (3) See if you can find it in the kitchen. (4) The car stopped.
 (5) I voted for the motion. (6) You were later than we were.

4. 다음 문장에 핵음조가 하나씩 있다. 녹음내용을 잘 듣고 핵음조를 가진 음절에 밑줄을 그어라.

- (1) John likes fish. (2) This is my book. (3) Are you coming?
 (4) I don't want any tea. (5) Which hotel are you staying at?

5. 하나의 음조단위(Tone Unit)에 하나의 핵음조가 있다. 다음 문장에서 음조단위의 경계를 /로 표시 하고 각 음조단위에 하나의 핵음조를 밑줄로 표시하라.

예: (Two Tone Unit) If he comes, I'll call you.

One Tone Unit: (1) ('s) a flap on it. (2) you tell me about yours (3) well dark hair

Two Tone Unit: (4) on the top of the lip

- (5) well they're on alternate steps they're not on every step
 (6) and a lady's handbag hanging on a nail on the wall Three Tone Unit:
 (7) and what about your television two knobs in the front

6. 다음 단어의 제1강세음절에 강세표시를 하고 단어의 품사를 골라라.

- (1) subject (명사 동사) (2) convict (명사 동사) (3) perfect (형용사 동사)
 (4) refuse (명사 동사) (5) separate (형용사 동사) (6) envelope (명사 동사)

7. 다음 녹음내용에 알맞는 물음은 어느 것인가? 8. 다음 녹음내용에 알맞는 의미는 어느 것인가?

녹음내용 : I put my black coat away.

녹음내용 : Could you lend me ten dollars?

- (1) What did you put away?
 (2) Where did you put your black coat?

- (1) Not five or twenty.
 (2) I don't want you to give it to me.

- (3) what coat did you put away? (3) Not Jim or anybody else.
- (4) Whose black coat did you put away? (4) Is it possible for you?
- (5) Did the maid put your black coat away for you? (5) I want to know whether you can do it.

3. 대상 및 방법

청취 테스트는 어학 실습실을 이용하여 충북대학교 1학년 153명에게 실시하였다. 자연계열에서 2개 학과(농과대학과 공과대학에서 각각 1개 학과), 인문계열(인문대학)에서 1개 학과, 사회계열(사회과학대학) 1개 학과를 선택하여 학과별로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아주 무성의한 답지를 제외 시키고, 자연계 대 인문계,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100명의 답지를 선택하여 통계처리의 신뢰성과 편의성(100명 임의로 백분율을 따로 낼 필요가 없음)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남녀 비율은 60대 40이고, 인문 사회계열 대 자연계열의 비율은 40대 60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녹음 자료는 정답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문장 간에 두어 녹음하였지만 무응답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두번 들려 주었다. 듣기평가 전에 답안지 작성요령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문제지에 문항지시 내용을 자세하게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전 교육은 하지 않았다.

4. 결과 및 해석

4.1 단어강세 (무의미 단어)

문 항	정답률 (%)	음 절 별 청 취 경 향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기 타
(1) li lí	86	14	86			
(2) la lá	91	9	91			
(3) la la lá	65	6	28	65		1
(4) lá la la	97	97	2	1		
(5) la la lá la	76	2	15	76	2	5
평균 정답률(%)	83	97	88.5	70.5		

본 문항들은 무의미 단어(nonsense word)로 모두 CV의 경음절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평균 정답률 83%로 가설(6a)의 예측대로 한국인은 비교적 강도 탁립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6b)에서 예측한대로 첫 음절(97%)과 둘째 음절(88.5%)에서 평균 정답률이 셋째 음절의 70.5%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4)문항의 경우에 첫 음절이 경음절이라 한국어의 강세 부여 규칙(II장의 (5) 참조)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은 것은 첫 음절과 둘째 음절에 강세 판단을 더 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섯 문항 모두 만점인 사람이 52명이고 네 문항 이상(즉, 80% 이상) 정답인 사람이 73%나 되어 한국인은 약간의 훈련을 하면 영어의 강세 식별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4.2 단어 강세 (영국의 지명)

문항	정답률 %	음절별 정취 경향			
		첫째	둘째	셋째	기타
(1) Colchester	97	97	3		
(2) Dunfermline	96		96	1	3
(3) Stevenage	93	93	4	1	2
(4) Penzance	92	3	92		5
(5) Glamorgan	89	6	89	3	2
(6) Coleraine	79	7	10	79	4
(7) Huddersfield	91	91	2	6	1
(8) Halesowen	65	17	65	7	11
(9) Wilmslow	95	95		5	
(10) Inverness	76	5	14	76	5
평균 정답률 %	87.3	94	85.5	77.5	

본 문항들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지명이다. 이러한 단어들을 선택한 것은 강세를 미리 예측하여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모두 세 음절 단어로 대체로 중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도 4.1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평균 정답률이 87.3%로 경음절에서 보다 중음절에서 약간 높다. 또한 음절별 평균 정답률도 첫 음절 94%, 둘째 음절 85.5%, 셋째 음절 77.5%로 모두 중음절인 경우 첫 음절에서 강세 인식이 가장 높고, 셋째 음절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10문항 모두 맞춘 만점률은 40%이지만 8문항 이상 맞춘 비율은 82%로 위의 4.1의 결과와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가설 (6)의 a, b가 재확인 된다.9)

9.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슷한 연구를 한 정태호(1988)의

4.3. 문장 강세

문항번호	문항 및 청취 내용	정답률 %
(1)	Of course we want to come 1 94 3 74 1 91	58
(2)	Everyone thought it was terrible 65 24 25 10 1 95	16
(3)	See if you can find it in kitchen 64 17 9 2 92 8 3 89	41
(4)	The car stopped 93 49	42
(5)	I voted for the motion 18 49 73 50	12
(6)	You were later than we were 62 23 50 6 77 32	27
평균 정답률 %		32.7

예측한대로 단어의 강세 인식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영어의 문장 강세(또는 리듬)에 관한 감각은 아주 저조하여 평균 정답률이 32.7%로 나타났다. (1)문항은 ws ws ws의 규칙적인 리듬군으로 이루어져서 다른 문장에 비해 정답률이 높은 편이다. 모두 단음절 단어로 구성이 되었고, 기능어와 내용어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강세 판단이 용이하다. (2)문항도 swswswsw의 규칙적인 sww 리듬군의 반복으로 구성된 문장인데 정답률이 16%로 저조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문제는 Everyone에 있는 것 같다. -one이 제 3강세를 가지고 있어 어느정도 강도 타협이 있어 혼동을 가져온 것 같고 사람에게 따라 Every-를 3음절로 인식한 것 같다. (3)문항은 swwwwswwww이지만 (2)문항에 비해 정답률(41%)이 높은 것은 내용어 see, find, kitchen이 기능어에 비교하여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 같다. (4)문항은 ws/s 형으로 s와 s가 인접해 있음으로 예상보다 정답률이 낮다(42%). 약음절 다음에 car의 청취력이 높은 것에 반비례하여 상대적 강도 타협에서 stop-을 w로 판단한 학생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는 car와 stop-사이에 휴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도 요인이 되는 것 같다. (5)문항은 정상적인 문장강세에서 벗어나 기능어인 for에 강조강세(emphatic stress)가 부여된 경우이다. 예상보다 반응이 높은 것(73%)은 자연히 for에 피치 액센트가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vot-와 mot-의 반응이 저조하다. 따라서 정답률도 12%로 극히 저조하다. 끝으로 (6)문항은 you와 we에 대조강세(contrastive stress)가 부여된 경우이다. 대조강세 자체에 대한 반응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정답률은 27%로 낮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인은 영어 특유의 리듬습관에 익숙하지 못하다.

결과와 비슷하다.

4.4. 억양 (핵음조)

문항번호	문항 및 청취 내용	정답률 %
(1)	John likes <u>fish</u> 1 5 94	94
(2)	This <u>is</u> my book 45 27 18 10	27
(3)	Are <u>you</u> coming? 28 72	28
(4)	I don't want any <u>tea</u> 1 11 6 10 72	72
(5)	<u>Which</u> hotel are you staying at? 9 18 2 4 51 16	9
평균정답률 %		46

여기의 5개 문항은 영어의 핵음조를 어느정도 인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한 문장에 하나의 핵음조, 즉, 하나의 억양군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평균 정답률 46%로 예측한대로 핵음조 인식률이 저조하다. (1)문항과 (4)문항 같이 내용어가 핵음조인 경우는 비교적 좋은 편이나, 기능어인 경우는 아주 저조하다. 한 마디로 말하여 한국 학생들이 영어의 핵음조에 아주 익숙하지 못한 단면을 볼 수 있다.

4.5. 억양 (핵음조와 음조단위 경계)

문항번호	구분	청취 내용	정답률 %
(1)	문항 핵음조	('s) a <u>flap</u> on it 기타 54 8 24 14	53
(2)	문항 핵음조	You tell me about <u>yours</u> 기타 3 27 3 3 46 18	45
(3)	문항 핵음조	Well <u>dark</u> hair 기타 33 45 10 12	42
(4)	문항 핵음조 휴지	On the <u>top</u> / of the <u>lip</u> 6 91 5 83 1 88 2	77
(5)	문항 핵음조 휴지	Well they're on <u>alternate</u> steps / 2 2 2 77 18 3 1 1 4 92	44
	문항 핵음조 휴지	they're not on <u>every</u> step 2 18 1 45 26 2	

문항 번호	구분	청취 내용	정답률 %
(6)	문항 핵음조 휴지	and a lady's <u>handbag</u> / hanging 3 78 17 66 13	36
	문항 핵음조 휴지	on a nail on the wall 26 66 1 18	
(7)	문항 핵음조 휴지	and what about your <u>television</u> / 2 26 7 2 67 5 8 7 1 79	25
	문항 핵음조 휴지	two <u>knohs</u> / in the <u>front</u> 17 70 1 68 1 57	
평균정답률 %		핵음조: 65.8 ; 휴지: 76.4	46

여기의 7문항중에 (1)-(3) 문항은 하나의 억양군으로 구성되었고, (4)-(6)은 두개의 억양군, (7)은 1개의 억양군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1)-(3)은 각각 하나의 핵음조, (4)-(6)은 두개의 핵음조와 하나의 음조단위 경계, (7)은 세개의 핵음조, 두개의 음조단위 경계를 요구하였다. (1)-(3)에서 기타에는 약간의 무응답을 포함하고 있지만 두개 이상의 핵음조에 반응한 답을 포함하였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핵음조와 휴지 인식은 평균 정답률 각각 65.8%와 76.4%로 평균 이상의 정답률을 보이나, 전체적인 정답률은 46%로 낮은 편이다. 휴지와 핵음조가 많은 구문일수록 정답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4.6. 단어강세와 의미

여기의 문항들은 변별적 강세 유형의 차이로서 품사가 달라지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단어 강세의 기능은 영어 단어 강세의 많지 않은 기능 중에 하나로 주로 명사/형용사 형과 동사형이 대조가 된다. 즉, 강세 위치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따라서 의미도 달라진다. (1)-(4)문항들은 두음절어 단어인데 강세 인식률은 아주 높아서 평균 정답률 97%나 된다. (5)-(6)문항들은 세음절어 단어인데 역시 평균 정답률 89%로 높은 편이다. 이들 단어들은 잘 알려진 단어들이나 점도 있겠지만 대체로 두, 세음절의 단어강세들은 대학생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학생들은 두음절어, 세음절어의 단어강세는 잘 인식하고 있고 품사 식별도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형용사와 동사 식별력은 다소 떨어진다. 특히 세음절어 단어에서는 품사 식별력이 훨씬 떨어진다.

문항번호	문항 및 청취 내용				정답률 %
(1)	subject 1 98	명사 6	동사 93	무응답 1	93
(2)	convict 97 2	명사 86	동사 13	무응답 1	86
(3)	perfect 97 2	형용사 83	동사 16	무응답 1	82
(4)	refuse 96 3	명사 87	동사 12	무응답 1	87
(5)	separate 88 5 3	형용사 49	동사 47	무응답 4	39
(6)	envelope 5 90 2	명사 17	동사 80	무응답 3	78
평균정답률 %	강제: 94.3 ; 의미: 79.3				77.5

4.7. 억양 의미

녹음 내용 및 답지	청취반응	정답률 %
7. 녹음내용: I put my black <u>coat</u> away. 답지: (1) What did you put away ? (2) Where did you put your black coat ? (3) What coat did you put away ? (4) Whose black coat did you put away ? (5) did the maid put your black coat away for you ? 무응답	32 25 28 9 5 1	32
8. 녹음내용: Could you lend <u>me</u> ten dollars ? 답지: (1) Not five or twenty. (2) I don't want you to give it to me. (3) Not Jim or anybody else. (4) Is it possible for you ? (5) I want to know whether you can do it. 무응답	14 17 10 32 24 3	10

7문항은 녹음내용과 같이 답을 했을 때의 질문은 어느것이냐를 묻는 문제로 coat가 초점강세를 받는 핵음조가 된다. 그러므로 coat는 신정보(new information)가 되고

다른 단어는 구정보(old information)¹⁰⁾가 된다. 따라서 coat를 포함하는 질문은 성립될 수 없고, 정답은 (1)번이 된다. 녹음 내용만 정확히 청취하면, 즉 coat가 핵음조라는 것을 청취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정답률은 32%로 저조하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만 가지고는 핵음조 식별을 못했는지, 핵음조 식별은 했는데 억양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8문항도 me가 초점강세를 받고 핵음조가 된 경우이다. dollers에 강조강세가 오면 보통의 진술이고, ten에 오면 정답은 (1)이 될 것이고, lend에 오면 정답은 (2)가 되고, could에 오면 (4)가 되고, you에 오면 (5)가 된다. 여기에서는 me이기 때문에 (3)이 정답이 된다. 그런데 정답률은 10%가 되어 극히 저조하다. 그리고 5개의 답지 중에 오히려 제일 낮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 학생들이 핵음조 변화에 따른 억양 의미 식별력은 아주 저조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효과적인 영어음성 교육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어리듬과 억양구조 인식을 조사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I장은 이론적 연구로 영어의 강세와 액센트, 강세박자와 리듬단위, 억양군, 그리고 한국어의 리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고찰하였고, III장은 실험연구로 실제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작성된 평가자료에 의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취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였다. 평가자료는 II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단어강세와 문장강세 인식, 핵음조와 억양군 경계 인식, 강세의미 및 억양의미 인식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하였다.

III장의 결과 및 해석을 종합적으로 요약,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어강세 인식 결과는 III장의 4.1, 4.2, 4.6에서 보여준다. 4.1의 무의미단어에서 평균정답률 83%, 4.2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에서 87.3%, 4.6의 잘 알려진 단어에서 94.3% 등의 순으로 정답률을 보였다. 이들의 전체 평균은 88.3%로 한국 학생들의 영어 강세 인식률은 높다. 특히 4.2에서 첫음절은 94.0%, 둘째음절은 85.5%, 셋째음절은 77.5%의 평균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가설(6b)에서 예측한 대로 첫음절과 둘째음절에서 강세 판단이 셋째음절에서보다 높게 나왔다.

문장강세 인식의 결과(즉, 4.3)는 각 문장의 개별적인 강세 인식률은 전체 평균 70.1%((1)-(6)문항에서 문장강세를 받는 총 17개 강세음절의 반응 빈도의 평균)인데 비해 문항별 문장강세의 정답률은 6문항의 평균정답률이 32.7%로 아주 낮다. (1)-(3)문

10. 신정보, 구정보 이론에 대해서는 Cruttenden 1986: 88-95 참조.

항은 모두 규칙적인 리듬반복으로 구성된 문장인데도 (2)문항의 정답률이 16%로 극히 저조한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1)문항, (3)문항과 달리, 단음절 단어가 아니고 복합어(everyone), 다음절단어(terrible)가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everyone의 -one이 문장강세를 받는 것으로 반응한 학생이 24%로 그 다음 thought와 크게 혼동을 한 결과인 것 같다. 또한 (5)문항의 강조강세, (6)문항의 대조강세를 받는 경우는 각각 12%, 27% 아주 저조한 인식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한국 학생들은 영어 문장강세에 익숙하지 못하고, 강음절과 약음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핵음조 인식의 결과(즉, 4.4와 4.5)는 각각 46%와 65.8% 평균정답률로 썩 좋은 반응은 아니다. 4.4에서 내용어인 경우는 94%((1)문항), 72%((4)문항)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기능어인 경우 27%((2)문항), 28%((3)문항), 16%((5)문항)로 극히 저조한 식별력을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내용어라도 억양군의 끝에 오는 단음절단어(즉, (1)의 fish)는 94%로 아주 높다. 이러한 현상은 4.5에서도 보여지는데 (4)문항에서 top(91%), lip(83%)는 (1)문항의 flap(54%) 보다 훨씬 높은 식별력을 보인다. 한마디로 말하여 억양군의 맨 오른쪽의 내용어 핵음조는 비교적 인식률이 높는데 비해 억양군 중간의 핵음조(특히 기능어인 경우)는 식별력이 훨씬 떨어진다.

음조단위 경계 인식의 결과(즉, 4.5)는 평균정답률 76.4%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다소 통사적으로 복잡하거나 긴문장(즉, (6)문항), 세개 이상의 억양군으로 이루어진 문장(즉, (7)문항)인 경우는 각각 36%, 25%로 아주 저조한 인식률을 보인다. 억양군 경계 판단에서 문법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예를들면 전치사 뒤)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영어 청취에서 음조 경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어강세의미 인식의 결과(즉, 4.6)는 두음절인 경우 네 단어의 평균정답률 87%로 높은 편이며, 명사와 동사의 식별력이 형용사와 동사의 식별력 보다 높다. 세음절인 경우는 식별력이 훨씬 떨어져 58.5%이고, 특히 형용사와 동사의 식별력은 39%로 아주 저조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잘 알려진 단어에서 강세의미 식별력은 높는데 비하여,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의 경우는 식별력이 떨어진다.

억양의미 인식의 결과(즉, 4.7)는 평균정답률 21%로 극히 저조하다. 여기에는 핵음조 식별력과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하여 더욱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학생들의 핵음조 변화에 따른 의미 식별력은 수준 이하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취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7) 한국 학생의 영어리듬과 억양구조 인식에 대한 문제점

a. 한국 대학생은 영어의 단어강세를 비교적 잘 인식한다. (i) 특히 첫음절이나 둘

- 제음절에서 식별력은 상당히 높다. (ii) 그러나 긴모음(또는 이중모음)을 포함한 음절에 강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iii) 따라서 폐음절(즉, cvc)의 강세 식별력은 다소 떨어진다.
- b. 한국 대학생은 영어리듬의 등시간격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i) 리듬 패턴에 따른 강음절과 약음절의 식별력이 떨어진다. (ii) 문장강세 판단이 매우 불안하여 다음절 단어나 복합어가 개입되면 큰 혼동을 일으킨다. (iii) 문장강세 판단에서 통사구조와 휴지를 고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iv) 강조강세나 대조강세를 받는 단어가 있는 경우(특히 기능어)에 크게 혼동을 한다.
- c. 한국 대학생은 핵음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i) 내용어 핵음조는 기능어 핵음조보다 훨씬 식별력이 높다. (ii) 억양군 끝어오는 핵음조는 중간어오는 핵음조보다 식별력이 높다. (iii) 다음절 단어의 핵음조는 다음절 단어나 복합어에서의 핵음조보다 인식률이 높다. (iv) 한 억양군에 하나의 핵음조가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다.
- d. 한국 대학생은 음조단위(또는 억양군) 경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i) 통사적으로 다소 복잡하거나 긴 문장에서 경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ii) 한 문장이 여러 억양군으로 구성될 때 경계 판단이 혼동된다. (iii) 억양군 경계에서 휴지 인식률이 부족하다. (iv) 억양군 경계 판단에서 대체로 문법단위에 의존하면서 때로는 문법구조를 무시한다.
- e. 한국 대학생은 단어강세의 의미 식별력은 높은 편이다. (i) 특히 두음절어 명사와 동사에서 식별력이 높다. (ii) 형용사와 동사 식별력은 다소 떨어진다. (iii) 세음절 단어에서 식별력은 훨씬 떨어진다. (iv) 특히 세음절어 단어의 형용사와 동사 식별력은 낮은 편이다. (v) 잘 알지 못하는 단어의 의미 식별력은 떨어진다.
- f. 한국 대학생은 억양의미 식별력은 수준 이하이다. 특히 대조강세, 강조강세 등으로 부여되는 초점강세에 따르는 의미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되는 문제점과 제 II장의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 학생들을 위한 강세와 리듬과 억양 등의 영어음성 교육이론과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8) 영어강세, 리듬, 억양등의 음성교육

a. 단어강세 교육

- (i) 등급: 제1강세, 제2강세, 무강세 (ii) 제1강세는 피치액센트나 핵음조가 될 수 있다. (iii) 제1강세가 주로 문장강세가 된다. (iv) 강세음절만이 제음가대로 발음된다. (v) 무강세음절은 약하고 압착된다. (vi) 두음절 이상의 단어를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한다. (vii) 강세에 따르는 의미변화를 인식한다.

b. 리듬과 문장강세 교육

- (i) 리듬군 → (선도음절) 제1강세음절(추적음절) (ii) 한 리듬군에 반드시 하나의 제1강세가 있다. (iii) 가급적 형태나 통사구조를 고려하여 리듬군을 설정한다. (iv) 제1강세 음절은 선도음절, 뒤의 것은 추적음절. (v) 선도음절과 추적음절은 선택적. (vi) 선도음절은 추적음절 보다 더 약하고 짧게 발음된다. (vii) 리듬군을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한다. (viii) 한 문장을 리듬군으로 분할하는 연습을 한다. (ix) 한 문장의 리듬군은 등시간격을 갖는다. (x) 리듬군의 제1강세가 문장강세가 된다. (xi) 따라서 한 문장의 리듬군의 수와 문장강세의 수는 같다. (xii) 두 리듬군 이상으로 구성된 문장을 단계적으로 듣고 발음하는 훈련을 한다. (xiii) 강조강세, 대조강세를 받는 리듬과 문장강세를 익힌다.

c. 억양군 교육

- (i) 억양군 → (머리) 핵음조 (꼬리). (ii) 핵음조는 필수적, 머리와 꼬리는 선택적. (iii) 따라서 한 억양군은 반드시 하나의 핵음조가 있다. (iv) 억양군은 리듬군의 집합. (v) 보통의 억양군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리듬군의 제1강세가 핵음조가 된다. (vi) 대조나 강조를 위해 초점강세가 부여되면 그 음절이 핵음조가 된다. (vii) 핵음조 변화를 듣고 말하는 훈련을 한다. (viii) 핵음조 변화에 따르는 의미 변화를 인식한다. (ix) 머리의 피치 액센트와 여기에 따르는 의미나 태도의 변화를 인식한다. (x) 한 문장은 하나 이상의 억양군의 집합. (xi) 억양군 경계에서 생기는 휴지를 인식한다.

- d. 절차: 위의 순서가 대체로 훈련절차가 된다. 요약하면 단어강세 훈련 → 강음절/약음절 훈련 → 리듬군 훈련 → 등시간격성 훈련 → 핵음조 훈련 → 억양군 훈련 → 둘이상의 억양군 문장 훈련.

지금까지 서술한 음성교육 및 훈련절차는 개략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교육절차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일이다.

참고 문헌

Abercrombie, David. 1967. *Elements of General Phonetics*. Edinburgh Univ. Press.

___ et al.(eds.). 1964. *In Honour of Daniel jones, contributed on the*

- occasion of his eightieth birthday 12 September 1961.* London: Longmans.
- Adams, Corinne. 1979. *English Speech Rhythm and the Foreign Learner.* The Hague: Mouton Publishers.
- Ashby, Michael. 1978. A study of two English nuclear tones, *Language and Speech v. 21, part 4*: 326-36.
- Bolinger, Dwight L. 1972a(1964). Around the edge of language, *D. Bolinger(ed.), 1972*: 19-29 (Harvard Educational Review v. 34, no.2: 282-93, 1964).
- _____. (ed.) 1972b. *Intonation: Selected Readings.* Penguin Books.
- Couper-Kuhlen, Elizabeth. 1986. *An Introduction to English Prosody.* London: Edward Arnold.
- Cruttenden, Alan. 1986. *Into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Frank, Diana Crone. 1974. *The Structure of Intonation: A First Approximation.*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Gimson, A. C. 1980(1962).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 A. K. 1970. *A Course in Spoken English: Intonation.* London: Oxford Univ. Press.
- Hayes, Bruce. 1979. Ternary stress feet in English,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 1*: 88-94.
- _____. 1981. *A Metrical Theory of Stress Rules.* Bloomington: IULC.
- Jones, Daniel. 1909. *Intonation Curves.* Leipzig: B. G. Teubner.
- _____. 1960(1918, 1932).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ition.*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 Kingdon, Roger. 1958. *The Groundwork of English Intonation.* London: Longmans.

- Ladd, D. Robert Jr.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Evidence from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Liberman, Mark & Alan Prince .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v. 8 no.2*: 249-336
- O'Connor, J. D. 1980(1967). *Better English Pronunciation, 2nd ed.* Cambridge Univ. Press.
- Pike, Kenneth L. 1945.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rator, Clifford H. Jr. 1972(1957).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Roach, Peter. 1983.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A practical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biger. M. 1958. *English Intonation: Its form and function*. Tubingen: Max Niemeyer Verlag.
- Selkirk, E. O. 1980. The role of prosodic categories in English word stress, *Linguistics Inquiry v. 11, no.3*: 563-605.
- _____.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 Trager, George L. & Henry Lee Smith Jr. 1951. *An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 박 주현. 1984. 대학생의 영어 모음 청취 능력 조사 연구, *영어 영문학 연구 제26호*: 139-81. 한국 영어 영문학회 충청 지부.
- _____. 1989. *영어의 리듬과 운율 이론*. 박사학위 논문, 서울 대학교.
- 박 진희. 1990. *한국어 낱말 리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이 승녕. 1960. 현대 서울말의 accent 고찰, *국어학 논고* 동양 출판사.
- 이 현복. 1973. 현대 한국어의 accent, *서울 대학교 문리대 학보 19권 합병호(통*

권 28호): 113-28.

- ____. 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 연구 10-2: 10-25*. 서울 대학교 어학 연구소.
- ____. 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4호*: 31-48. 대한 음성학회.
- 이 호영. 1987. *현대 한국어의 액센트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전 상범. 1985. *영어 음성학*: 영미어 문학 대계 제10권 서울: 을류 문화사.
- 정 인섭. 1965. 우리말 액센트는 고저(pitch) 액센트다; Sona-Graph 실험에 의한 Accent와 Intonation의 종합적 결론,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10호*: 9-50.
- 정 태호. 1989. *고등 학생의 영어 강세 청취 식별력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충북 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nglish Rhythm and Intonation Structure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o-Hyun Park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the actual problems of the perception of English rhythm and intonation structure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studied English in the secondary schools for the past six years, and to establish the systems of English rhythm and intonation structure for the Korean students of English.

For this study, the listening test is provided, and 100 students are chosen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noticeabl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Koreans perceive the words stress comparatively well in nonsense words, unfamiliar place names, and familiar word.
- (2) Koreans do not perceive the isochrony of English rhythm well enough. The

perception of the sentence stress is very unstable, especially in the sentence involved in polysyllabic words, compound words, and 'emphatic stress' or 'contrastive stress'(or in the different rhythmic patterns).

- (3) Koreans do not perceive the nucleus well enough. The perception of the nucleus is more stable in content words than in function words, at the end of a sentence than in the middle of a sentence, and in monosyllabic words than in the polysyllabic words.
- (4) Koreans do not perceive the boundary(or pause) of intonation group well enough. The perception of the pause is unstable in the long or complex sentence.
- (5) Koreans discriminate the meaning of English word stress comparatively well, especially in disyllabic words. But the discrimination is somewhat unstable in polysyllabic words and between 'adjective' and 'verb'.
- (6) Koreans' discrimination of the intonation meaning is below the level. Koreans do not perceive the differences of intonation meaning according to the pitch accent or the focus.

In conclusion, the writer will propose the procedures for the teaching of rhythm and intonation in the following order:

word stress drill → stressed and reduced syllables drill → rhythm group drill → the varying rhythm drill → sentence stress drill → nucleus drill → intonation group drill → long utterance drill of more than two intonation group